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

글 정재학 작가 / 사진 전호성 노브스튜디오



발달장애인과 체조를 함께하는 서혜미 국장(앞줄 오른쪽). 체조 같은 신체활동은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초체력을 다지는 효과를 준다.

서울 개포동 수서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하상장애인복지관. 1993년 3월에 개관, 올해로 24년째를 맞은 강남구 장애인 복지활동의 산실이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가톨릭맹인선교회 산하의 사회복지법인인 하상복지재단이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 복지관의 모태인 가톨릭맹인선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교육치료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선교회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장애인 복지활동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복지관의 서혜미(52) 사무국장은 이 복지관이 설립된 지 1년 후인 1994년 3월부터 지금까지 23년째 복지관을 곳곳이 지키고 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만난 장애인 아이가 이제 다 큰 어른이 된 모습을 볼 때면 세월을 실감한다.

앞선 경력까지 포함하면 30년 동안 장애인 복지 외길을 걸어온 서혜미 사무국장은 전남 해남 출신이다. 극장업과 운수업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성장 과정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잘 몰랐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

전남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처음으로 달동네 조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달동네 같은 삶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면서 막연하게나마 잡지 기사를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1987년부터 장애인 복지활동

대학을 졸업하던 1987년, 전남지역 기업인 고려시멘트에서 설립한 덕산복지재단에 입사하면서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일부 기업들이 막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비록 사회복지자를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사회학을 전공했고,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큰 망설임 없이 새로운 분야로 뛰어 들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재단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 국장은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터 돕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의 복지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고, 복지관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심층조사도 실시했다.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곁에서 보고 막연하게 생각하



※ 서혜미 사무국장: 1965년 전남 해남에서 4녀 중 장녀로 출생. 전남대사대부고, 전남대 사회학과 거쳐 가톨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경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1987년 광주 덕산복지재단 입사 뒤 1994년부터 서울 하상장애인복지관 근무 중, 현재 사무국장. 아산상 복지실천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시장상, 강남구청장상 등 수상. 1994년 결혼한 남편(53)과의 사이에 1남(22).

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저…는 바…보…가… 아님…니…다.”

그때 만났던 뇌병변 장애인 한 사람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조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는 방문 취지를 설명하자 묻지도 않았는데 아주 힘든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인상을 잔뜩 쓴 표정에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금방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들은 단지 비장애인들과 조금 다를 뿐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장애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두터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비정상이나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런 경험에 쌓이면서 장애인 복지 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모토가 생겼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



하상장애인복지관 입구에 위치한 카페 '하랑'에서. 하랑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교육과 취업을 위해 만들어졌고, 하랑 출신 바리스타들은 전국장애인바리스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서 국장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남지역에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근무하며 덕산복지재단과 복지관 설립에 기여하고, 무료 순회진료와 보건소 연계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의욕적으로 일해왔던 덕산복지재단과의 인연은 6년 7개월 만에 끝을 냈다. 1994년 결혼하면서 남편(이충렬·53)이 근무하는 서울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일을 끝낼 수는 없었다. 서울로 이사를 오자마자 신문에 난 모집 공고를 보고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지원, 장애인 복지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남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순회진료 비중이 컸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으로 오다보니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그 중 하나가 일

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다.

장애인들은 장애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편견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활동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및 사회통합 활동이었다. 비장애인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장애를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면서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것이다.

선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진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높은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내려보라고 하면 키가 큰 친구들보다 작은 친구들이 물건을 내리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갖는 차이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체험을 통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일상생활 속에서의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해하게 됐고, 그들을 더 배려해 주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이러한 노력들은 다른 장애인복지관으로도 확산돼 현재 강남구 내의 5개 장애인복지관이 연합해 펼치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을 다졌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2004년 4월, 복지관 내에 하상예술치료 센터를 개설하고 예술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치료를 새롭게 시도했다. 장애인 재활이라고 하면 물리치료와 언어치료가 거의 전부이던 시절에 음악과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치료를 시도하면서 장애인 재활치료의 새로운 영역을 앞장서서 개척하는 데도 서 국장의 역할이 컸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개관 초부터 운영해오던 녹음도서관과 점자도서관에 이어 2006년부터는 시각장애인 디지털 음성도서관 사이트인 온소리(onsori.or.kr)를 열고 도서 제공과 컴퓨터 교육, 동호회 활동 지원, 메일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LG그룹의 후원을 받아 시각장애인 전용 휴대폰과 장애인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저시력 확대 보조기 등 정보 학습 기기를 1만여 명의 시각 장애인에게 보급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뭐까요?”

서해미 국장은 후배들에게 강의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는 후배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



자원봉사자들이 음성도서를 녹음하는 부스에서.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연간 500여 권의 음성도서를 녹음한다(왼쪽). 발달장애인의 직업 적응훈련 모습.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른쪽).

할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서 국장 역시 처음 장애인 복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라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막연하게나마 장애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정도였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만난 장애인들은 단순히 치료만을 원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사람

때로는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기도 했고,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피하려고도 했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장애인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고민을 자신이 해결해주지 못할 때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란 장애인들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혼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어떤 선택의 순간,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좀 더 나은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죠.”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정체성이다. 가끔은 앞에서 끌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뭔가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사

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그 어떤 복지 분야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치료나 재활은 물론 음악과 미술, 무용 등 예술 분야에서부터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 좋은 선배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일을 하면서 궁금하고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늦은 나이에 학업을 놓지 않았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2002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2년에는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밖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서울시복지재단 인증 전문위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니터링 위원,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감독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2011년부터는 숭실대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부터 인근 강남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당시 서 국장을 강남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서 국장은 현장에 남아서 활동하고 싶다는 소망이 커서 관장 직을 고사하기도 했다. 1987년 우연처럼 시작한 장애인 사회복지사의 길, 30년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의 자세는 장애인들에게는 물론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